

李白〈古風〉五十九首 譯解(3)

- 제12수에서 제19수까지

趙成干ⁱ, 金敏鎬ⁱ, 李東鄉ⁱⁱ, 徐盛^{iv}, 金慶天^v,
李基勉^{vi}, 崔宇錫^{vii}, 金貞熙^{viii}, 盧垠靜^{ix}, 趙得昌^x*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君平既棄世
 - 2) 胡關饒風沙
 - 3) 燕趙延郭隗
 - 4) 金華牧羊兒
 - 5) 天津三月時
 - 6) 西上蓮花山
 - 7) 昔我游齊都
 - 8) 泣與親友別
3. 결론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과 ‘실용’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신’과 ‘인문’의 가치가 상실되었다. 이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노출되고 사회 병리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문학을 부흥시켜 이러한 현상들을 치유하고 극복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화, 문명화시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상은 인문학을 꽃 피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문학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의 주요 문헌 특히 중국 고전문헌에 대한 역주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현대와 더불어 호흡하는 텍스트가

* i) 을지대 교수(주저자) ii) 한림대 교수, iii) 고려대 명예교수, iv) 열린사이버대 교수, v) 성균관대 교수, vi) 배재대 교수, vii) 우송대 교수, viii) 한양여대 교수, ix) 성신여대 강사, x) 협성대 교수(교신저자 chodc38@yahoo.co.kr)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 인문정신이 재생산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철학을 향유하며 우리 일상의 삶이 더욱 가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문학의 이러한 지향과 역할을 위하여, 국내 몇몇 학자와 연구자들은 《李白全集》을 역주하여 李白의 인생과 예술 향기를 대중에게 전파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좀더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李白全集》을 역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이백의 인생과 예술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완역이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李白全集》의 완역을 기획하여 시가작품부터 역주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은 역주 '연구'→'발표'→'토론'→'수정'→'재토론'→'재수정'→역주 '완성'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 〈李白 古風五十九首 譯解〉(3)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제12수에서 제19수까지 총 8수를 다루었다. 작품의 역주 체제는 '번역'·'校記'·'詳釋'·'解說'로 구성하였다. '번역'은 원문을 최대한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며 시적인 맛이 나도록 하였다. '校記'는 字句의 교감인데,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저본으로 字句의 異同을 고찰하였다. '詳釋'은 시의 '번역'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해설'은 작품에 대한 배경, 년도, 분석, 감상, 평가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작가는 이백의 고풍 8수에 대한 작품 내용·'古風'의 운용방식·작품의 색채 및 정조·예술수사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크게는 이백의 삶과 예술 정신을 이해하여 우리 영혼의 안식과 삶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2. 본론

1) 고풍 제12수 君平既棄世

君平既棄世,¹⁾ 엄군평은 일찍이 세상을 버렸고

1) 君平 : 西漢 말기의 道家 학자인 嚴君平(BC 86~AD 10)을 말함. 成都 사람. 그는 成帝 때 은거하여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揚雄의 스승이기도 하다. 저서에 《老子注》, 《道德眞經指歸》

世亦棄君平. 세상 또한 엄군평을 버렸네.
 觀變窮太易,²⁾ 변화를 살펴 우주의 시초를 궁구하고
 探元化群生.³⁾ 천도를 밝혀 못 백성을 감화했네.
 寂寞綴道論, 적막한 가운데 도가의 학설을 짓고
 空簾閉幽情.⁴⁾ 빈 발 드리우고 그윽한 마음 지켰네.
 騶虞不虛來,⁵⁾ 추우는 헛되이 오지 않고
 鸞鷲有時鳴.⁶⁾ 봉황은 때가 되면 나타나 운다네.

- 등이 있다. 《漢書·王貢兩龔鮑傳》 참조. ○ 君平既棄世, 世亦棄君平 : 鮑照의 〈詠史〉詩에 “엄군평은 홀로 고요하게 지내니, 자신과 세상이 서로 버렸네(君平獨寂寞, 身世兩相棄)”라는 구절이 있고, 이에 대하여 李善의 “자신은 세상을 버려 버슬하지 않았고, 세상도 자신을 버려 버슬을 맡기지 않았다(身棄世而不仕, 世棄身而不任)”라는 주석이 있다.
- 2) 變 : 《주역》의卦의 변화를 가리킴. ○ 太易 : 우주의 시초. 《列子·天瑞》에 “태역은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이다. 태초는 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이다. 태시는 형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이다. 태소는 바탕이 처음 생겼을 때이다(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 氣之始也. 太始者, 形之始也. 太素者, 質之始也)”라고 하였다.
- 3) 元 : 乾元, 天道를 의미함. 《周易·乾卦》象傳에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비롯되며, 곧 하늘을 다스리는도다(大哉, 乾元! 萬物資始, 乃統天)”라고 하였다. ○ 觀變窮太易, 探元化群生 : 이 두 구절은 《漢書·王貢兩龔鮑傳》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엄군평의 《주역》 연구와 점술에 관한 언급이다. “성제 때에 엄군평은 성도의 저자거리에서 《주역》 점을 쳐주며 살았는데, ‘점쟁이는 천한 직업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누가 사악하거나 바르지 못한 질문을 해오면 점괘에 의거하여 이해관계를 말해준다. 남의 자식에게 말할 때는 효에 의거하고, 남의 동생에게 말할 때는 순종의 덕에 의거하고, 남의 신하에게 말해줌에는 충성에 의거한다. 각각 형세에 따라 선으로써 이끄니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이미 과반이 넘는다고 하였다.(成帝時, 君平卜筮于成都市, 以爲‘卜筮者賤業, 而可以惠衆人. 有邪惡非正之間, 則依著龜爲言利害. 與人子言依于孝, 與人弟言依於順, 與人臣言依於忠, 各因勢導之以善, 從吾言者, 已過半矣’)”
- 4) 寂寞綴道論, 空簾閉幽情 : 이 두 구절은 《漢書·王貢兩龔鮑傳》의 “거우 하루에 몇 명의 점을 봐주고 백 냥을 벌여 스스로 생활에 충분하다면, 곧 가게 문을 닫고 발을 치고 《老子》를 가르쳤다. 두루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노자와 장자의 뜻에 의거하여 십여만 자에 달하는 책을 지었다.(裁日閱數人, 得百錢足自養, 則閉肆下簾而授《老子》. 博覽亡不通, 依老子嚴周之指, 著書十餘萬言)”에 근거한 것으로, 엄군평의 도가 연구와 심신수양에 관한 언급이다.
- 5) 騶虞(추우) : 전설상의 의롭고 여진 동물. 《詩經·召南》〈騶虞〉편의 毛傳에 “추우는 의로운 동물이다. 흰 호랑이 모습에 검은 무늬가 있으며 살아있는 짐승은 먹지 않는다. 지극한 신의의 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에 화답한다(騶虞, 義獸也. 白虎黑文, 不食生物, 有至信之德, 則應之)”고 하였다.
- 6) 鸞鷲(악작) : 봉황의 일종. 상서로운 새. 《國語·周語上》에 “周나라가 일어날 때 악작이 기산에서 울었다(周之興也, 鸞鷲鳴於岐山)”라는 글이 있다. ○ 騶虞不虛來, 鸞鷲有時鳴 : 이 두 구에 대하여 元 蕭士贇은 “聖賢은 헛되이 태어나지 않으며 그 출현은 때가 있음을 비유한 것

安知天漢上, 어찌 알았으랴? 은하수가에
白日懸高名⁷⁾ 빛나는 해처럼 높은 이름 걸려있음을.

(喻聖賢不虛生, 其出也有時)"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明 朱諫은 "騶虞와 鸞鷟은 세상을 상서롭게 하는 사물(騶虞鸞鷟, 皆瑞世之物)"이라고 하면서 "엄군평은 騶虞나 鸞鷟처럼 세상의 드문 상서로운 존재로서, 태어나서 헛되이 살지 않았고, 말을 하면 모두 적중하였음을 뜻한다(言君平 有如騶虞鸞鷟, 爲希世之瑞, 生不虛生, 而言則多中)"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唐 唐汝詢은 이와는 달리 《唐詩解》에서 "하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은 추우나 악작과 같아서 이름이 끝내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 (天生是人, 如騶虞鸞鷟, 不終使之浪浪)"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추우나 봉황이 세상에 나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엄군평도 그의 이름이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의 내용과 같이 마침내 은하수가에 그의 명성이 환히 빛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위의 해설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본 번역에서는 이 두 구에 대하여 엄군평은 당시에 태어나 騶虞나 鸞鷟같은 덕을 실행하였으며 아울러 세상의 상서로운 존재로서 살았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 근거는 史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漢書·王貢兩龔鮑傳》에 "엄군평은 구십 여 살에 드디어 자신이 힘쓰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 촉 땅의 사람들이 아끼고 존경하여 지금까지 그를 칭송하고 있다. 그에 대한 논의에 말하기를 '..... 촉의 엄군평은 덕을 숨기고 은거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업도 다스리지 않았다. 오래도록 숨어살면서도 그 지조를 바꾸지 않았으니 隋珠나 和璧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 빛나겠는가? 이것을 들어 의표로 삼는다면 어찌 보배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성에는 담옥을 막고 풍속을 굳건히 하기에 죽하니 근세의 드러나지 않은 인재이다.(君平年九十餘, 遂以其業終, 蜀人愛敬, 至今稱焉. 其論曰, '..... 蜀嚴湛冥, 不作苟見, 不治苟得, 久幽而不改其操, 雖隋和, 何以加諸? 舉茲以旃, 不亦寶乎!' 其風聲足以激貪厲俗, 近古之逸民也)" 라고 하였다. 또한 騶虞나 鸞鷟의 출현은 성인이 나오기 전의 상서로운 징조인데, 속설에 엄군평은 후한 광무제가 즉위하기 20여 년 전에 樂山의 한 바위에 "王莽服誅, 光武中興"이라고 새겨놓았다고 전한다.

- 7) 安知天漢上, 白日懸高名 : 天漢은 은하수. 속세의 사람들은 엄군평의 고명한 이름이 천상의 세계에 널리 퍼져있음을 상상도 못했다는 뜻. 이와 조금 달리 唐 唐汝詢은 《唐詩解》에서 "은하수 세상에서는 (엄군평을) 어찌 알았나? 빛나는 해처럼 그의 높은 이름 걸려있네"의 뜻으로 해설하였다. 이 두 구는 晉 張華의 《博物志》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은하수는 바다와 통하여 있는데, 근래에 어떤 바닷가에 사람이 해마다 8월이면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를 때를 잃지 않았다. 이 사람이 기이한 뜻이 있어 뗏목 위에 나는 듯한 누각을 세우고 식량을 실은 다음 그 뗏목을 타고 떠났다. 10여 일 동안은 여전히 별들이 보였으나 그 뒤로는 아득하고 어질어질하였으며 또한 낮과 밤을 알지 못하였다. 10여 일을 더 가자야 갑자기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성곽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집들이 뻐뻐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궁중에 베 짜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한 사내가 물가에 소를 끌고 와 머물며 물을 먹이는 것이 보였다. 소 끄는 사내가 놀라서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고 물으니, 이 사람은 보고서 오게 된 뜻을 설명하고 아울러 이곳이 어느 곳인지를 물었다. 대답하기를 '당신은 돌아가 촉군에 가서 엄군평을 방문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끝내 물에 오르지 않고 이에 기일에 맞추어 돌아왔다. 나중에 촉군에 가서 엄군평을 방문하니, 엄군평이 말하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유성이 견우자리를 침범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시간을 계산해보니 바로 자신이 은하수에 도착한 때였다(舊說云, 天河與海通, 近世有人居海濱者, 年

海客去已久, 지금은 바다 길손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
誰人測沉冥.⁸⁾ 누가 그의 숨은 높은 덕 헤아릴까?

〈校記〉

- 제4구의 '元'은 '玄'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 제5구의 '道論'은 '眞道'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 제6구의 '情'은 '淸'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 제7구의 '虛'는 '復'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 제12구의 '人'은 '能'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한대의 엄군평은 덕과 재주를 지니고도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 하였다.

그는 《주역》의 괘효의 변화를 살펴서 우주의 시초를 궁구하였고, 천도의 이치를 탐구하여 이로써 많은 백성을 감화시켰다.

세상을 피하여 고요히 홀로 살며 도를 논하는 저술을 짓고, 아무도 들추지 않는 주렴이 드리워진 방안에 홀로 앉아 그윽한 마음을 지키며 수양하였다.

추우가 하릴없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고상한 인품과 덕으로 세상에 사표

年八月, 有浮槎去來, 不失期. 人有奇志, 立飛閣於槎上, 多資糧, 乘槎而去. 十余日中, 猶觀星辰, 自後芒芒忽忽, 亦不覺晝夜. 去十餘日, 奄至一處, 有城廓狀, 屋舍甚嚴, 遙望宮中多織婦, 見一丈夫, 牽牛渚次飲之. 牽牛人乃驚問, '何由至此?' 此人見說來意, 并問'此是何處?' 答曰, '君還至蜀郡, 訪嚴君平, 則知之.' 竟不上岸, 因還如期. 後至蜀, 問君平, 曰, '某年月日, 有客星犯牽牛宿.' 計年月, 正是此人到天河時也.)"

8) 沉冥 : 湛冥과 같음. 《漢書·王貢兩龔鮑傳》에 “촉군의 엄군평은 깊이 숨어살았다(蜀嚴湛冥)”라는 글이 있다. 顏師古는 孟康의 말을 인용하여 “촉군의 엄군평은 깊이 숨어살며 고요함속에 머물며 욕심이 없었다(蜀郡嚴君平, 湛深玄默, 無欲也)”라고 주석하였다. 湛冥은 덕을 기르며 숨어 사는 것을 말한다. 이백 〈고풍〉 제36수에도 “가득 차면 하늘이 떨어내고, 깊이 숨으면 道와 무리가 된다네(盈滿天所損, 沉冥道爲群)”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陳子昂 〈感遇〉 38首 중 제6수에 “고요한 속의 감응은 표상의 인식과는 다르니, 누가 능히 숨어 덕을 기르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나?(玄感非象識, 誰能測沉冥)”이란 구절이 있다. ○ 誰人測沉冥 : 지금은 엄군평의 드러나지 않는 높은 덕이 어떠한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따라서 높은 덕을 지니고 숨어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이가 없게 되었다는 뜻.

가 되었고, 봉황 또한 때가 되면 세상에 나타나 올듯 그의 존재는 태평성대를 위한 세상의 상서로운 징조였다.

어찌 생각이나 했겠나? 은하수가의 천상 세계에서는 엄군평의 명성이 빛나는 태양처럼 드높았음을. 당시 뗏목을 타고 천상을 찾아가 엄군평의 높은 덕을 알았던 바다의 나그네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지금 누가 숨어살았던 엄군평의 높은 덕을 헤아릴 수 있는가?

〈解説〉

이 시는 漢代의 隱士였던 엄군평의 사적을 읊은 詠史詩로서, 엄군평에 관한 《漢書·王貢兩龔鮑傳》속의 짙막한 기사와 역시 엄군평에 관한 《博物志》의 한 전설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다.

시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제1구~제6구)는 은자 엄군평의 높은 덕과 평생의 사업을 읊었고, 중간(제7구~제10구)은 속세에서 버림받은 그의 이름이 천상에서는 널리 퍼져 있음을 그렸으며, 끝(제11구~제12구)은 현재 그의 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울러 엄군평처럼 높은 덕을 닦으면서 숨어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이가 없는 현실을 탄식했다.

蕭士贊, 徐禎卿, 曾國藩 등은 이 시가 이백이 자신의 처지나 願望을 엄군평에게 자탁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백의 평소 지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이 시에서 이백은 엄군평의 사적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재주와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어살아도, 혹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결국은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德必有隣’의 인식으로 이백에게는 희망이 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설사 깊은 도와 덕을 지니고 있다할지라도 이를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즉 어떤 계기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존재가 영원히 묻힐 수 있음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懷才不遇’의 경우로 이백에게는 절망인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자신의 덕과 재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이백의 염원이 투사된 것이라 하겠다.

이 시는 표현기교상 앞에서 ‘世亦棄君平’이라고 말하고 끝에서 다시 ‘誰人測沉冥’이라고 말하여 수미에 유사한 의미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현자에 대한 세상의 몰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는 古詩임에도 중간의 3·4구, 5·6구, 7·8구에 대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시라고 해서 대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다량 적용하는 것은 분명 이채롭다. 이백의 유연한 창작태도를 엿보게 한다.

2) 고평 제13수 胡關饒風沙

胡關饒風沙,⁹⁾ 변세에는 모래바람만 가득하니,
 蕭索竟終古.¹⁰⁾ 예부터 줄곧 삭막하기만 하네.
 歲落秋草黃,¹¹⁾ 낙엽 지고 풀마저 누렇게 말라가는 가을,
 登高望戎虜. 높은 데 올라 오랑캐 땅 바라보는데
 荒城空大漠, 막막한 사막엔 황량한 성만 덩그러니
 邊邑無遺堵. 변방 마을엔 담장조차 없네.
 白骨橫千霜, 백골들 천년 서리 맞으며 나뒹굴며
 嵯峨蔽榛莽.¹²⁾ 울쭉불쭉 쌓여 우거진 덤불에 뒤덮혀 있네.
 借問誰凌虐?¹³⁾ 뉘 이리 잔인하게 욱 보였냐 물으니

- 9) 蕭士贊은 《唐史》의 〈哥舒翰傳〉을 인용하여 이 시가 가서한이 석보성을 공격한 것을 쓴 시라고 하였다. ○ 石堡城 : 青海湖 동부의 전략적 요지로, 지금의 青海省 西寧 서남부이다. 석보성은 주변의 삼면이 높이 수천 미터의 절벽으로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토번은 이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칼날 성’이라 일컬었다. 천보 8년(749)에 가서한이 토번의 석보성을 공격하여 토벌하였다. ○ 胡關 : 鴈門關, 玉門關, 陽關, 大震關 등 서쪽에 있는 관문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오랑캐 땅과 중원의 경계로 모든 북방민족들이 중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관문들을 통과해야 했다. ○ 饒(요) : 많다.
- 10) 蕭索(소삭) : 조용하고 쓸쓸한 모양. ○ 竟 : 처음부터 끝까지, 늘상, 항상. ○ 終古 : 옛날부터, 영원, 끝없이 오래.
- 11) 歲落 : 《禮記·月令》에 “늦은 가을 달, 이 달에 초목의 잎이 떨어지면 나무를 벌채하여 숯을 굽는다(季秋之月, 是月也, 草木黃落, 乃伐薪爲炭).”라고 하였다.
- 12) 嵯峨(차아) : 산이 높이 솟아 험한 모양. 우뚝 솟아 있는 모양. 울퉁불퉁하여 평평하지 않은 모양. 여기에서는 백골이 울쭉불쭉 드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형용한다. ○ 榛莽(진망) : 무성한 초목.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 풀숲.

天驕毒威武,¹⁴⁾ 오랑캐 왕의 위세와 무력이 악독했다하네.
 赫怒我聖皇,¹⁵⁾ 불같이 노하신 우리 임금
 勞師事鼙鼓,¹⁶⁾ 군사를 다그쳐서 戰鼓를 울리니
 陽和變殺氣,¹⁷⁾ 온화한 기운 살기로 바뀌고
 發卒騷中土, 징병하느라 온 나라가 소란스럽네.
 三十六萬人, 삼십육만 대군
 哀哀淚如雨, 후후 눈물은 비오듯 하는데
 且悲就行役,¹⁸⁾ 잠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행역을 떠나니
 安得營農圃,¹⁹⁾ 어찌 다시 농사지를 수 있을거냐?
 不見征戍兒, 변경의 병사들 보지 않고서
 豈知關山苦,²⁰⁾ 어찌 변세의 고초 알 수 있으랴?

13) 凌虐(능학) : 침범하여 학대함. 업신여기어 모욕하고 학대함.
 14) 天驕 : 하늘의 교만한 아들, 또는 하늘의 총애를 받는 아들로 흉노의 왕인 單于를 지칭한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교만을 부린다는 뜻으로, 세력이 강대하여 우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서·흉노전》의 “그 다음해에 선우는 사신을 보내 한나라에 편지를 보내왔다. 남쪽에는 한나라가 있고, 북에는 강한 胡가 있는데, 호는 하늘의 총애를 받는 아들(驕子)이다”(其明年, 單于遣使遺漢書云“南有大漢, 北有強胡. 胡者, 天之驕子也”)에 용례가 있다. ○ 毒 : 악랄하다. 잔인하다. 닥치는 대로 잔인하고 포악하게 행동하다. ○ 威武(위무) : 권세와 무력.
 15) 赫怒 : 얼굴을 붉히면서 버럭 성을 냄. ○ 聖皇 : 唐 玄宗. 玄宗은 즉위한 후 貞觀·永徽 기간에 이루어졌던 ‘天可汗’의 국제 성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대외확장전쟁을 시작했다. 당시의 형세를 감안하면 여러 이민족 가운데서 吐蕃과 突厥이 가장 강하며 그 중에서도 吐蕃의 위협이 최대였다. 吐蕃은 수십만의 군사를 갖고 있어, 남쪽으로는 娑羅門(인도)을 제압하고 북으로는 四鎮을 취하였으며, 서쪽으로는 突厥을 얻었고 동으로는 吐谷渾을 합병하여 그 차지한 지역이 만여 리나 되었다. 그래서 玄宗은 吐蕃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우고, 즉위 다음해부터 30년간 토번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었다. 唐의 백여 년간의 대외전쟁을 살펴보면, 太宗과 高宗 시대는 대외로 확장하는 전쟁이 위주였고, 武后 시기는 대외전쟁에서 방어를 위주로 했으며, 玄宗 시기는 주로 통치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收復을 위주로 한 전쟁이었다.
 16) 鼙鼓(비고) : 옛날 군대의 戰鼓로, 기병이 말을 탄 채 치는 작은 북. 말에 싣고 다니며 싸움이 벌어지면 북을 쳐서 공격 신호로 삼았다.
 17) 陽和 : 온화한 기운.
 18) 行役 : 官命에 따라 토목 사업을 벌이는 勞役 또는 국경을 지키는 兵役에 종사하는 것.
 19) 安得 : (반문의 뜻으로) 어떻게 ... 할 수 있으랴. ○ 農圃 : 五穀을 심는 것은 ‘農’이고, 채소를 심는 것은 ‘圃’이다.
 20) 圭組 : 圭는 瑞玉으로 작위를 내릴 때 주는 홀이고, 組는 圭를 묶는 끈. 官爵을 비유하는

李牧今不在,²¹⁾ 李牧 같은 장군 지금은 없으니
邊人飼豺虎.²²⁾ 변방 사람들은 사나운 오랑캐의 먹이가 되는구나.

〈校記〉

제3구의 ‘歲落’은 ‘木落’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0구 “豈知關山苦”의 아래에는 판본에 따라서 다음의 네 구가 첨가되어 있는
것도 있다.

爭鋒徒死節, 적과 싸우는 것이 한갓 절개를 위한 죽음이 되었으니
秉鉞皆庸豎, 병권을 잡은 이들은 모두 속물이라네.
戰士死蒿萊, 전사들은 쭉대밭에서 죽어가고
將軍獲圭組, 장군들은 관직을 얻네.

〈詳釋〉

오랑캐와 마주하는 변방의 관문에는 모래바람만 불어오니 예부터 줄곧 황량하
고 삭막하기만 했다.
낙엽 지고 풀마저 누렇게 말라가는 가을이 되면 무장을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
는 오랑캐들을 살피보기 위해, 높은 데 올라 오랑캐 땅 살펴본다.
드넓은 사막에 황폐한 성은 텅 비어 있고, 변방 마을엔 끊임없는 전쟁으로 담장
조차 다 허물어졌다. 그리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백골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오랜
세월동안 서리 맞으며 드높이 우거진 덩불에 뒤덮혀 있는 처참한 풍경이 눈에 들

의미.
21) 李牧(? ~ BC 228) : 전국 시대 趙나라 장군. 오랜 기간 代와 雁門에서 匈奴를 방비했다.
군졸들에게 넉넉한 군량을 지급해 軍心을 얻은 후, 말 타기와 활쏘기를 훈련시켜 출병해
 흉노를 격파했다. 肥에서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어 武安君에 봉해졌지만, 진나라 사신이
 조나라 군주의 측근이며 간신이었던 郭開에게 그가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참수 당했
 다. 적이 침입하면 대항하지 않고 軍民을 철수시키고 城으로 들어가 사기를 키우며 지키다
 가 상대가 태만해진 때를 노려 불의에 공격하는 작전을 써서 흉노 10여만을 물리쳤다. 이
 로 인해 흉노가 10여 년간 변방을 침범하지 않다. 이러한 이목의 수비전략은 유명하여 조
 선시대 군사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2) 豺虎(시호) : 송냥이와 호랑이. 곧 사납고 악한 것으로 잔혹한 악인이나 흉포한 도적을 비
 유할 때 사용한다.

어온다.

누가 감히 이리 잔인하고 흉폭한 일을 자행했나 생각해보니, 강대한 토번족이 닥치는 대로 포악한 살생을 저지른 것이다.

이 소식 들은 황제폐하(현종)께서 토번정벌을 위해 군대 징집하여 전쟁을 선포 하니, 태평했던 개원의 성세의 분위기를 돌연 살기를 띠며, 정벌을 위한 군대 출정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 소란스럽다.

삼십육만 대군, 이제 떠나면 언제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 비처럼 눈물 쏟으며 슬피 변방으로 떠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 지난날처럼 농사짓고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변경의 병사들 초췌한 몰골 본 적 없다면 어찌 변경의 고초를 알 수 있겠는가?

수비전략으로 흉노 물리친 조나라 李牧 같은 명장이 지금은 없으니, 변경 백성들은 승냥이와 범 같은 오랑캐에게 약탈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解説〉

蕭士贊은 《唐史》의 〈哥舒翰傳〉을 인용하여 이 시가 천보 8년(749)에 哥舒翰이 토번의 石堡城을 공격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쓴 시라고 했다. 그러나 胡震亨은 이에 대해 석보성 공격에는 10만 대군이 출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언급한 36만 대군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시에서 언급한 36만 대군은 수십 년 간 토번과의 전쟁에서 동원된 병사를 통합하여 언급한 것이며, 끊임없는 전쟁을 탄식한 것으로, 석보성 공격 하나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시는 이백이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변경 백성들의 삶을 목도하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탁상공론으로 백성들만 희생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시는 처음 6구는 변방의 삭막하고 서글픈 풍경을 묘사했고, 다음 4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처참한 풍경을 묘사했으며, 다음 4구는 전쟁의 시작, 다음 4구는 출정하는 병사들의 슬픔, 다음 2구는 변방 병사들의 고통을 묘사했다. 마지막 두 구절 “李牧今不在, 邊人餉豺虎”이 이 시의 요지로, 이목처럼 뛰어난 책략으로 오랑캐를 대적할 수 있는 장군이 없는 지금 오랑캐들의 끊임없는 약탈로 변경 백성

들의 삶은 고통스럽다고 탄식했다.

3) 고품 제14수 燕趙延郭隗

燕趙延郭隗,²³⁾ 연 소왕이 광외를 초빙하더니
 遂築黃金臺,²⁴⁾ 드디어 황금대를 지었다.
 劇辛方趙至,²⁵⁾ 극신은 방금 조나라에서 오고
 鄒衍復齊來,²⁶⁾ 추연은 또 제나라에서 왔다.
 奈何青雲士,²⁷⁾ 어찌 하여 구름처럼 높은 고관대작들은
 棄我如塵埃!²⁸⁾ 나를 티끌처럼 버리는가.
 珠玉買歌笑, 주옥으로 미녀의 노래와 웃음을 사지만
 糟糠養賢才. 현능한 인재에게는 지게미와 겨를 쓰는구나.
 方知黃鶴舉,²⁹⁾ 이제야 알겠노니, 왜 황학이 높이 날아

23) 燕趙 : 燕昭(연소)라고 해야 옳다. 연나라 昭王. 전국시대 연나라를 중흥시킨 군주. 이름은 姬平. 기원전 312년 재위한 이래 28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인재를 모아 연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이때 발탁된 주요 인물로는 郭隗, 樂毅, 鄒衍, 劇辛 등이다. 《史記·燕召公世家》에 전기가 있다. ○ 郭隗 : 전국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연 소왕의 客卿이 되어 활약하였다. 연 소왕이 제나라에 복수할 방책을 묻자 자신을 높이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연 소왕이 궁을 만들고 스승으로 모시자,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24) 黃金臺 : 연 소왕이 세웠다고 하는 누대. 천금을 올려놓고 천하의 인재를 초빙하였다. 그 위치는 지금의 하북성 易縣 동남으로, 陳子昂이 노래한 幽州臺이다.

25) 劇辛 : 전국시대 연나라의 정치가. 원래 조나라 사람으로 武靈王 아래에서 일했으며 중형가인 龐煖과 친하였다. 연 소왕이 인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연나라에 가 활약하였다. 연 소왕이 죽고 나서 4대 燕王喜 때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했으나 패배하여 죽었다.

26) 鄒衍 : 전국시대 철학가로 음양가의 창시자이다. 원래 제나라 사람이나 연 소왕의 초빙에 응하여 연나라에 갔다. 연 소왕이 빗자루를 들고 영접하였으며 제자로 자처하며 碣石宮을 지어 모셨다.

27) 青雲士 :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여기서는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는 대신을 가리킨다.

28) “棄我”句 : 이 구는 漢代 ‘古詩十九首’의 제7수 〈밝은 달은 교묘히 비치고(明月皎夜光)〉에 나오는 “예전에 함께 공부한 동문 친구들, 높이 올라 날개를 떨치는구나. 함께 손잡았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고, 땅위의 발자국처럼 나를 버렸구나(昔我同門友, 高舉振六翮: 不念攜手好, 棄我如遺跡)”와 발상이 유사하다.

29) “方知”句 : 춘추시대 田饒가 魯 哀公을 섬겼으나 중용되지 못하자 떠나며 한 말을 가리킨

千里獨徘徊. 천리 멀리에서 홀로 배회하는지를.

〈校記〉

제3구의 '奎'는 '往'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예전에 전국시대 연나라에서는 소왕이 제나라로부터 당한 수모를 설욕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 곽외의 건의에 따라 높은 누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천금을 올려놓고 천하의 인재를 초빙하였다.

이에 조나라에서 극신이 오고 제나라에서 추연이 오는 등 각지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연나라는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을 먼지나 때처럼 여겨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미인의 노래와 웃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가의 주옥도 마음껏 내놓지만, 어진 인재에 대해서는 기껏 겨와 지게미를 내놓을 뿐이다.

이러매 황학처럼 높이 나는 일비충천의 인재들이 왜 천리 밖에서 홀로 배회하고 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알겠노라.

다. 전요가 “신이 장차 그대를 떠나 황곡처럼 날아가려오(臣將去君, 黃鵠舉矣)!”라고 말하자 애공이 그 뜻을 물었다. 전요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주군께선 저기 닭을 보지 못하셨소? 머리에 벼슬을 이고 있으니 文이요, 발에 머느리발톱이 달렸으니 武요, 적이 앞에 있으면 용감히 싸우니 勇이요, 먹이를 보면 서로 부르니 仁이요, 밤을 지키며 시간을 놓치지 않으니 信입니다. 닭에게 비록 이 다섯 가지 미덕이 있어도 주군께선 날마다 살아서 잡아먹으니 무슨 까닭인가요? 그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곡은 한번 날면 천리를 가는데, 주군의 정원에 내려와 주군의 물고기와 자라를 먹고 주군의 조와 기장을 쪼면서라도 다섯 가지 미덕도 없지만 주군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는 멀리서 왔기 때문입니다. 신은 장차 황곡처럼 멀리 날아가려 합니다(君獨不見夫鷄乎? 頭戴冠者, 文也; 足傅距者, 武也; 敵在前敢鬪者, 勇也; 見食相呼, 仁也; 守夜不失時, 信也. 鷄有此五德, 君猶日淪而食之者, 何也? 則以其所從來者近也. 夫黃鵠一舉千里, 止君園池, 食君魚鼈, 啄君黍粱, 無此五德, 君猶貴之, 以其所從來者遠也. 臣將去君, 黃鵠舉矣).”라고 하였다. 전요는 연나라에 가서 재상이 되었으며, 삼년이 지나자 정치는 태평하고 나라에 도적이 없었다. 애공이 이를 듣고 탄식하며 석 달 동안 혼자 자며 의복의 등급을 낮추었다. ‘鵠’은 ‘鶴’과 통한다. 《韓詩外傳》 권2 참조.

〈解說〉

인재를 중시 여기는 연 소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는 현재의 위정자를 비판하였다. 역대로 평론가들의 의견은 당시의 대신들이 선비를 우대하지 않는 풍토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명대 서정경(徐禎卿)은 “당시의 귀족과 고관을 비판하였다”(刺時貴)라 하였고, 명대 주간(朱諫)은 “당시 대신들이 선비를 우대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刺當時大臣不能禮士也)고 하였다. 그러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청대 진항(陳沆)은 천보 말기에 지은 것으로 본 데 반해, 현대의 안기(安期)는 731년(개원 19년)에, 침영(詹鏜)은 744년(천보 3년)에 지은 것으로 보는 등 다양하다. 이는 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다. 만약 이 시가 상반부만 있다면 이백이 유주(幽州)를 방문한 752년(천보 11년)으로 볼 수 있으나, “나를 티끌처럼 버리는가”라는 구절을 보면 이백이 744년 장안을 떠날 때와 관련된다. 그리고 이백이 장안에 처음 도착하여 뜻을 얻지 못한 때의 탄식으로 본다면 731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작시기에 대한 추정 은 전적으로 시 속의 내용에서 추측한 것으로, 특히 제6구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6구가 강렬한 불만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744년 설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본다.

4) 고풍 제15수 金華牧羊兒

金華牧羊兒,³⁰⁾ 금화산의 양치던 아이

30) 金華 : 산의 이름. 지금의 절강성 金華市 북쪽에 위치. 도가에서는 赤松子가 득도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牧羊兒 : 赤松子를 가리킨다. 晉代 葛洪의 《神仙傳》에 의하면 赤松子는 득도하여 신선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 黃初平을 가리킨다. 갈홍 《신선전》에 “황초평은 단계 사람이다. 십 오세 때 가족들이 양을 치게 했는데, 도사가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를 금화산의 석실(신선이 사는 곳)로 가게 하니, 사십여 년이 지나도 다시는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의 형 初起는 산으로 가서 초평을 찾았지만 수년이 지나서도 소식을 얻지 못했다. 후에 시내에서 한 도사를 만나자, 초기는 그를 불러 묻기를, ‘내 동생은 이름이 초평으로 양을 치게 했었는데 그를 잃어버린 지가 사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사와 소재를 모르고 있으니, 도사께서 원컨대 점을 좀 봐주시오’라고 했다. 도사가 말하기를, ‘금화산에 한 양치기가 있는데, 황씨 성으로 자가 초평이라고 하는데, 그대의 동생이 틀림없다’고 했다. 초기는 이 말을 듣고 곧 도사를 따라 동생을 구하러 갔다가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 …… 초기는

乃是紫煙客,³¹⁾ 바로 자색 구름 타는 신선일세.
 我願從之遊, 난 그를 따라 노닐기 원했건만
 未去髮已白. 가기도 전에 머리가 벌써 하얗게 세었네.
 不知繁華子,³²⁾ 모르겠네, 부귀한 사람들
 擾擾何所迫.³³⁾ 허둥지둥 무엇에 그리 쫓기는지.
 崑山採瓊藥,³⁴⁾ 곤륜산에서 옥나무의 꽃을 따면
 可以鍊精魄.³⁵⁾ 혼백을 단련할 수 있으련만.

〈校記〉

제5구의 ‘繁華’는 ‘朱顏’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7구의 ‘瓊藥’는 ‘瓊蕪’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黃初平은 金華山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는데, 도사로부터 도술을 배워 자주

곧 처자를 포기하고 남아 초평에게 배웠다. 함께 송진과 복령을 먹으니, 오백세에 이르렀다.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대낮에 걸어 다녀도 그림자가 없고, 어린아이의 얼굴과 같았다. 후에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친족들이 모두 죽고 없어 다시 돌아갔다. 초평은 자를 赤松子로 바꾸고, 초기는 자를 魯班으로 바꾸었다(黃初平者, 丹溪人也. 年十五歲, 家使牧羊. 有道士見其良謹, 便將至金華山石室中, 四十餘年不復念家. 其兄初起行山尋索初平, 歷年不得. 後見市中有一道士, 初起召問之曰: 吾有弟名初平, 因令牧羊, 失之四十餘年, 莫知死生所在, 願道君爲占之. 道士曰: 金華山中一牧羊兒, 姓黃, 字初平, 是卿弟非疑. 初起聞之, 卽隨道士去求弟, 遂得相見. …… 初起便棄妻子留住, 就初平學. 共服松脂茯苓, 至五百歲, 能坐在立亡, 行於日中無影, 而有童子之色. 後乃俱還鄉里, 親族死終略盡, 乃復還去, 初平改字爲赤松子, 初起改字爲魯班).”라고 되어 있다.

31) 紫煙客 : 자주빛의 상서로운 구름을 타는 사람, 즉 신선을 가리킴.

32) 繁華子 : 부귀한 사람.

33) 擾擾 :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

34) 崑山 : 崑崙山을 말한다. ○ 瓊藥 : 상상속의 나무인 옥나무의 꽃. 《漢書·司馬相如傳》에 “밤기운을 마시고 아침이슬을 먹고, 지초의 꽃잎을 씹고 옥나무의 꽃을 먹는다(呼吸沆瀣兮餐朝霞, 咀嚙芝英兮噉瓊華)”라고 되어 있고, 張揖의 注에 “경수는 곤륜산 서쪽의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데 돌레가 삼백 아홉이고 높이가 만 길에 이른다. 華는 옥나무의 꽃으로 그것을 먹으면 장수한다(瓊樹生崑崙西流沙濱, 大三百圍, 高萬仞. 華, 藥也, 食之長生)”라고 되어 있다.

35) 精魄 : 혼백.

빛 구름을 타는 신선이 되었다네.

나도 그 사람을 쫓아가 가르침을 받고 싶건만, 속세를 떠나 그를 따라가기도 전에 머리가 하얗게 세어가니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그 곳에서 살고 싶구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무엇 때문에 전전궁궁 그리 바빠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곤륜산에 올라 옥나무의 꽃을 따서 먹고 혼백을 단련하면 신선이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로다.

〈解說〉

이 시는 黃初平을 그리며 신선술을 배우고자 하는 뜻을 서술한 것이다. 蕭士贊은 이 또한 遊仙詩의 하나로 그 가운데는 세상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나 奚祿詒는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는” 시로 해석했다.

이 시의 작시 연대에 대해서는 安旗가 이백이 47세이던 天寶6년(747), 越 지방 婺州(지금의 절강성 金華市)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지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가운데 제 4구 “未去髮已白”은 이 시가 晩年에 지은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다.

5) 제16수 天津三月時

天津三月時,³⁶⁾ 천진교 춘삼월

千門桃與李,³⁷⁾ 집집마다 문 앞엔 복사꽃 오얏꽃.

36) 天津：隋唐때 황성 정남 방향의 洛水에 놓여 있던 다리. 洛陽 舊城 서남쪽에 있었다. 蕭士贊은 咸陽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元和郡縣志》권5에 “천진교는 하남현 북쪽으로 4리 쯤 떨어진 곳에 있다. 隋煬帝 大業 원년 초에 이 다리를 만들어서 洛水에 설치했다. 붉은 닛줄로 배를 묶었으며 쇠갈고리로 이를 연결하였다. 낙수에 홍수가 나면 부교가 번번이 부서졌기 때문에 貞觀14년에 사각형 돌로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했다. 《爾雅》에 “기성과 두성 사이가 은하수의 나루터(箕斗之間爲天漢之津)”라 하였던 데서 이 다리의 이름을 취하였다.

37) 千門：漢武帝가 長安에 세웠던 建章宮을 규모 때문에 ‘千門萬戶’라고 불렀던 데서(《史記·孝武本紀》：“於是作建章宮，度爲千門萬戶。”) 유래되어 ‘궁성의 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역자는 이를 ‘천진교 옆에 있는 가정집’으로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성 전체’로 볼 수도

朝爲斷腸花,³⁸⁾ 아침에는 단장의 꽃이었다가
 暮逐東流水,³⁹⁾ 저녁에는 동으로 흐르는 물결 따라 흘러가네.
 前水復後水, 앞 물결에 뒷 물결 이어지듯
 古今相續流,⁴⁰⁾ 예나 지금이나 서로 끊이지 않고 흐르건만
 新人非舊人, 지금 사람은 옛 사람 아닌지라
 年年橋上遊,⁴¹⁾ 해마다 새사람이 천진교 다리를 오가는구나.
 鷄鳴海色動,⁴²⁾ 닭 울고 새벽 동 트면
 謁帝羅公侯, 황제를 배알하려 공후가 늘어서네.
 月落西上陽,⁴³⁾ 달은 서상양궁 너머로 저도
 餘輝半城樓, 그 餘光은 성루를 반쯤 비춘다.
 衣冠照雲日, 의관은 아침 햇빛 받으며
 朝下散皇州, 조회를 끝내고 황성 곳곳으로 흩어진다.
 鞍馬如飛龍,⁴⁴⁾ 타고 가는 말은 날아가는 용과 같고
 黃金絡馬頭,⁴⁵⁾ 말 머리엔 황금 굴레 둘렀다.
 行人皆鬪易,⁴⁶⁾ 길가는 사람들 모두 놀라 물러서니
 志氣橫嵩丘,⁴⁷⁾ 그 기세 숭산에 걸친 것 같다.

있고, '천진교를 따라 늘어서 있는 고관대작들의 집'으로도 볼 수도 있다.

- 38) 斷腸花 : 楊齊賢의 注에 "단장화는 唐明皇이 千葉桃를 銷恨花라 하고 任昉이 萱草花를 療愁花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劉希夷는 〈公子行〉에서 "사랑스러운 양류는 상심의 나무이고 사랑스러운 도리는 단장의 꽃이로다(可憐楊柳傷心樹, 可憐桃李斷腸花)"라고 하였다.
- 39) 逐 : 쫓다. 쫓아가다. 따르다.
- 40) 續 : 이어지다. 계속하다. 계승하다.
- 41) 遊 : '來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2) 海色 : 楊齊賢의 注에 "해색은 새벽빛이다. 닭이 울 때에는 해색이 아직 밝지 않아 바다 기운이 몽롱한 것"이라 했다. 朱諫은 "해가 갓 떠오르면 海光이 動한다"고 했다. 《唐宋詩學要》에는 "海色動은 해가 뜰 때에 바닷물이 비등하는 것을 말한다. 舊注에는 해색을 天色에 비겼는데 이 또한 통한다"고 했다.
- 43) 西上陽 : 낙양의 궁성 서남쪽에 上陽宮이 있었고 상양궁 서쪽에 西上陽宮이 있었다고 한다.
- 44) 飛龍 : 《後漢書·明德馬皇后紀》에서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은 헤엄치는 용과 같다(車如流水, 馬如游龍)"라 했고, 《晉書·食貨志》에서도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은 나는 용과 같다(車如流水, 馬若飛龍)"라 했다.
- 45) 絡 : (그물 같은 것으로) 덮다. 씌우다. 감다. 휘감다. 《唐宋詩學要》에 "고악부 〈鷄鳴曲〉, 〈相逢行〉, 〈陌上桑〉에 모두 '黃金絡馬頭'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였다.
- 46) 鬪易 : 놀라 무서워서 뒷걸음치다. 쫓겨나다.

入門上高堂, 집에 들어 고당에 오르니
 列鼎錯珍羞.⁴⁸⁾ 늘어놓은 그릇 온갖 진수성찬에
 香風引趙舞,⁴⁹⁾ 향기로운 바람 따라 조 땅의 무희들 들어오고
 清管隨齊謳.⁵⁰⁾ 맑은 피리 소리엔 제 땅의 노래가 따르네.
 七十紫鴛鴦,⁵¹⁾ 일흔 마리 자원앙
 雙雙戲庭幽, 쌍쌍이 뜰 그윽한 곳에서 노니는데
 行樂爭晝夜, 밤낮으로 행락을 다투며
 自言度千秋 이렇게 천년을 살자 말하네.
 功成身不退,⁵²⁾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모르면
 自古多愆尤.⁵³⁾ 예로부터 허물만 많은 법.
 黃犬空歎息,⁵⁴⁾ 이사는 헛되이 황구의 탄식을 했고
 綠珠成鸞雛.⁵⁵⁾ 석숭은 녹주를 아끼다 원수를 맺었다네.

- 47) 嵩丘 : 오악 중의 中嶽으로 하남성에 있는 嵩山이다.
 48) 鼎 : 고대의 食器. 劉向의 《說苑·建本》에 “식기를 늘어놓고 밥을 먹는다(列鼎而食)”라 하였다. ○ 錯 :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 ‘雜’과 같은 의미이다.
 49) 趙舞 : 조나라 여인네들은 춤을 잘 쳤기 때문에 후에 이를 인용하여 ‘아름답고 운치 있는 춤’을 지칭하게 되었다.
 50) 齊謳 : 《初學記》에 “양나라 元帝의 《纂要》에 이르기를 ‘제나라 노래는 구라 하고 오나라 노래는 유’라 한다(梁元帝纂要曰: 齊歌曰謳, 吳歌曰歎)”고 했다.
 51) 紫鴛鴦 : 朱諫은 “무희들이 입는 옷일 것이라 추정하며, 《宋史·禮樂志》에 ‘원앙 일흔 두 마리가 줄을 맞춰 늘어섰다(鴛鴦七十二, 羅列自成行)’고 했는데, 여기서 일흔 둘은 무희들의 수이며 ... 이 시에서 일흔이라고 한 것은 우수리 없이 말한 것”이라 했다.
 52) 功成 : 《老子》에 “공이 이루어지고 이름도 얻었으니 몸이 물러가는 것은 하늘의 도(功成, 名遂, 身退, 天之道)”라 하였다.
 53) 愆尤 : 과실, 허물, 실수.
 54) 黃犬 : 우리말의 ‘黃狗’와 같다. 《史記·李斯列傳》에 2세 황제 2년 7월에 李斯에게 五刑을 갖추어 그 죄를 논하고 咸陽의 저자 거리에서 허리 자르는 형에 처할 때, 이사가 옥을 나서며 둘째 아들에게 “너와 함께 또 다시 황건을 끌고 上蔡東門을 나서 토끼 사냥을 하려 했는데.....”라 말하고는 부자가 서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55) 綠珠 : 여성의 이름. 晉의 石崇이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인 녹주라는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孫秀가 녹주에게 홀려 석숭에게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녹주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석숭이 이를 거절하자 손수가 趙王을 통해 석숭을 죽이려 무사를 보냈다. 석숭이 녹주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얻었다”고 말하자 녹주가 울면서 “나리의 은혜를 갚으려 나리 앞에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라 말하고는 누각 아래로 뛰어내려 죽었다. 그 후에 석숭의 일가족 중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자 없었다고 한다. ○ 鸞雛 : 원수를 맺다. ‘혼’

何如鷗夷子,⁵⁶⁾ 치이자처럼
散髮棹扁舟. 산발하고 조각배 저어 떠나감은 어떠한가?

〈校記〉

제5구의 '復'은 '非'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7구의 '新人'은 '今人'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朱諫은 제10구의 '公侯'를 '王侯'라고 하였다.
제11구의 '西上陽'은 '上陽西'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7구의 '關'은 《李詩選》 등에는 '辟'으로 되어 있다. '關'과 '辟'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구의 '棹'를 주간은 '弄'이라 하였다.

〈詳釋〉

洛陽城 남쪽에 있는 천진교에는 시절이 춘삼월이라 가가호호 대문 앞에는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만발하였다.
이런 복숭아꽃이나 오얏꽃은 한 시절 반짝 피는 꽃인 데다, 꽃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자면 애간장이 녹고 그 꽃이 지는 것을 보자면 슬픔에 겨워 단장의 아픔마저 느낀다. 아침에 애간장을 녹이던 꽃이 저녁이면 다 떨어져 동쪽으로 흐르는 물결 따라 등등 떠내려간다.
자연이란 변함이 없어서 물결 또한 앞 물결이 뒷 물결로 이어져 예나 지금이나 서로 끊이지 않고 흐른다.
하지만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금에 걸쳐 꼭 같은 사람이

은 가축의 피를 북이나 종에 발라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이고, '수'는 원수라는 의미이다.
56) 鷗夷子 : 范蠡를 가리킨다. 《史記·貨殖列傳》에 越王 勾踐이 會稽에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범려와 計然을 등용하였다. 십년 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병사들이 용맹해져서 드디어 오나라에 복수를 하고 五霸로 불리게 되었다. 범려가 회계의 치욕을 다 씻고 나서는 작은 배를 타고 강호를 떠돌다 성과 이름을 바꾸고는 제나라로 가서는 鷗夷子皮라 불렀고 陶나라로 가서는 朱公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鷗夷는 술을 담는 가죽부대이다. 오나라의 공신 伍子胥가 夫差에게 사살당했을 때 시체를 鷗皮에 싸서 양자강에 버렸다고 한다.

없는지라 천진교 다리를 오기는 사람 또한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닭이 울고 바닷물이 끓어오르듯 새벽 동이 트면 황제를 알현하려는 공후가 줄지어 선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바람에 해는 떠올랐지만 아직도 달은 완전히 지지 않았다. 서상양궁 너머로 지는 달이 모습을 감추어도 그 달의 殘光은 여전히 궁궐의 성루를 반쯤 비추인다.

시간이 흘러 조화가 끝나자 문무백관은 햇빛을 받아 조복을 번쩍이며 황성에 있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타는 말은 비룡같이 빠를 뿐 아니라 황금 굴레를 씌울 정도로 호사스럽다.

이들이 말달려 가는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나니 말 탄 자의 의기는 승산에 걸친 것처럼 양양하다.

행차를 끝내고 자신의 집에 들어 고당에 오르니 늘어놓은 그릇마다 진수성찬으로 가득가득하다.

향긋한 분 내음 풍기면서 조 땅 출신 무희들이 들어와 춤을 추고, 관현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가수들은 제 땅의 노래를 불러댄다.

무희들의 춤추는 모습은 마치 일흔 마리의 원앙새가 쌍쌍이 안뜰에서 노닐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낮을 밤 삼아 또는 밤을 낮 삼아 행락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좋은 세월을 천년만년 길이길이 즐기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 이름도 얻은 뒤에 몸이 물러가는 것은 하늘의 도리라 했듯이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모르면 자고로 허물만 많은 법.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던 이사는 죽기 직전에 아들과 함께 사냥개 몰고 토끼사냥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헛된 한숨을 지었고, 석승은 녹주라는 계집을 사랑하여 당시 권력자인 손수와 원수를 맺어 일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범려가 치이자피로 이름을 바꾸고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조각배를 타고 떠났던 것처럼 조용히 떠나가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解説〉

《繫年》에서 이 시는 개원 22년에 지어진 것으로,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徐禎卿은 이 시가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풍자하였다”고 했고, 朱諫은 “도성의 경물에도 代謝가 있고 부귀한 사람들 또한 변천이 있다는 것을 말한 시”라고 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8구는 천진교 주변의 봄 풍광과 자연과 인생의 일반적인 의미를 서술했고, 9~26구는 당시 권세가들의 호사스러움을 묘사하였으며, 27~32구는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6) 제17수 西上蓮花山

西上蓮花山,⁵⁷⁾ 서쪽 연화산에 오르니
 迢迢見明星,⁵⁸⁾ 저 멀리 명성 선녀 보이네.
 素手把芙蓉, 흰 손으로 연꽃을 잡고
 虛步躡太清,⁵⁹⁾ 허공 밟으며 하늘로 오르네.
 霓裳曳廣帶,⁶⁰⁾ 무지개 치마에 긴 허리띠 늘어뜨리고
 飄拂昇天行. 너울거리며 하늘 위로 올라가네.
 邀我登雲臺,⁶¹⁾ 나를 불러 운대봉에 올라
 高揖衛叔卿.⁶²⁾ 공손히 읊하며 위숙경에 배알케 하네.

57) 蓮花山：五嶽 중의 하나인 西嶽으로 華山을 가리킴. 《初學記》卷五에 “華山은 五嶽중의 西嶽이다(華山, 五嶽之西嶽也).”라는 전고가 있음.

58) 明星：화산에 사는 仙女의 이름. 《太平廣記》卷59에 “명성옥녀는 華山에 사는데, 옥수를 마시고 대낮에 승천하였다(明星玉女者, 居華山, 服玉漿, 白日昇天).”라는 전고가 있음.

59) 虛步：공중을 걷는 것을 가리킴. ○ 太清：하늘을 가리킴.

60) 霓裳：무지개로 만든 치마.

61) 雲臺：華山 동북부의 봉우리 이름.

62) 衛叔卿：《神仙傳》 권8에 “위숙경은 漢나라 때 中山郡 사람이다. 雲母를 복용하여 신선이 되었다. 漢武帝 元封 2年 (BC 109년) 8월 壬辰일에, 한무제는 궁전에서 한가로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흰 사슴이 끄는 구름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궁전 앞에 멈추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삼십 세 가량으로, 얼굴빛은 어린아이 같았으며 깃털로 짠 옷을 입고

恍恍與之去, 황황한 가운데 그와 함께 가니
 駕鴻凌紫冥.⁶³⁾ 큰 기러기 타고 자줏빛 하늘을 날아가네.
 俯視洛陽川, 낙양의 들판을 굽어보니
 茫茫走胡兵.⁶⁴⁾ 수많은 오랑캐 군대 달려가네.
 流血塗野草, 흐르는 피는 들풀을 적시는데
 豺狼盡冠纓.⁶⁵⁾ 승냥이와 늑대 다 관복을 입고있네.

〈校記〉

제1구의 '西上'은 '西嶽'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4구의 '虛步'는 '步虛'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五嶽의 하나인 서쪽 華山, 즉 蓮花山에 높이 올라 보니 저 멀리에 선녀인 명성(明星)이 보이네.

섬섬옥수의 하얀 손으로는 연꽃을 따고, 허공을 밟으며 하늘 위로 날아가는 자

별 문양의 관을 쓰고 있었다. 한무제는 놀라서 묻기를 '그대는 누구인가'하자, 답하기를 '저는 중산의 위숙경입니다'라고 했다. 한무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중산 사람이라면 곧 나의 신하이니 앞으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위숙경은 원래 한무제를 알현하고자 한 것은, 한무제가 선도(仙道)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으로, 한무제를 만나면 반드시 예절을 갖추어 환대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무제가 지금 한 말은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이니, 이에 크게 실망을 하여 한 마디 대꾸도 없이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衛叔卿者, 中山人也. 服雲母得仙, 漢元封八月壬辰, 孝武皇帝間居殿上, 忽有一人乘雲車, 駕白鹿, 從天而下. 來集殿前, 其人年可三十許, 色如童子, 羽衣星冠, 帝乃驚問, 曰, '爲誰?' 答曰, '吾中山衛叔卿也.' 帝曰, '子若是中山人, 乃朕臣也, 可前共語.' 叔卿本意謁帝, 謂帝好道, 見之必加優禮, 而帝今云是朕臣也. 于是大失望, 默然不應, 忽焉不知所在.)"라는 전고가 있음.

63) 駕鴻 : 郭璞의 〈遊仙詩〉에 "적송자는 상류에 임하여 큰 기러기 타고 자줏빛 구름 위로 오르네(赤松臨上遊, 駕鴻乘紫煙)"라는 전고가 보임. ○ 紫冥 : 자주빛 하늘을 가리킴. '駕鴻'이하 구절 아래에 楊士賢은 "이태백이 翰林供奉이 되었으나 그의 道와 맞지 않아 사직하고 떠나 천하를 유랑하였다. 얼마 뒤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낙양을 침칭했으니, 이태백은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보전하고 해를 멀리 할 수 있었던 것이다.(太白爲翰林供奉, 道不合, 辭去, 浪跡天下. 已而祿山反, 譖號洛陽, 則太白真能全身遠害矣.)"라는 주석을 달고 있음.

64) 胡兵 : 안록산의 반란군을 가리킴.

65) 豺狼 : 승냥이와 늑대로 여기서는 安祿山과 史思明이 기용한 逆臣의 무리를 가리킴. ○ 冠纓 : 갓과 갓끈으로, 관직을 가리킴.

태란!

무지개의 화려한 옷을 입고 긴 허리띠를 가벼이 끌면서 너울대며 하늘 위로 날아가누나.

그녀는 나를 불러 연화산의 동쪽 봉우리인 운대봉에 오르게 해서, 공손히 예를 갖추어 그 옛날 한나라 때의 신선인 衛叔卿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네.

황홀한 경지 속에서 그와 함께 나아가니, 큰 기러기를 타고 자줏빛 하늘로 솟아 오르네.

이렇듯 仙境을 자유로이 노닐다 문득 洛陽의 하천을 굽어보았더니, 저 멀리 아득히 오랑캐의 군대가 분주히 뛰어 가고 있구나.

낙양 부근은 전쟁의 참화로 붉은 선혈이 들판의 풀꽃들을 적시는데, 승냥이, 늑대 같은 파렴치한 무리들은 온갖 벼슬을 다 차지하고 있다네.

〈解説〉

이 시는 대체로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낙양을 함락한 至德元年(756)이후에 창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 4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遊仙詩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화산의 선녀를 만나고 신선 위숙경을 만나 仙境을 노니는 낭만적인 모습을 신기한 필치로 묘사했는지라도, 마지막 4구에서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낙양의 현실을 憂國愛民의 심정으로 비통하게 묘사하고 있어 전통적인 유선시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 속에서 이백은 황제의 냉대를 받고 속세를 떠나 버린 신선 위숙경의 전고를 인용하여 이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스스로 신선의 세계를 노닐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늘 엿보이는 것은 단지 이 시뿐만은 아닌 것이다.

7) 제18수 昔我游齊都

昔我游齊都,⁶⁶⁾ 옛날 내가 제나라 도성 유람할 때
登華不注峰,⁶⁷⁾ 화불주 봉우리에 올랐네.

茲山何俊秀, 이 산 얼마나 수려한지
 綠翠如芙蓉. 연잎 같은 비취 빛 이네.
 蕭颯古仙人,⁶⁸⁾ 초탈한 옛 선인
 了知是赤松.⁶⁹⁾ 적송자였네.
 借予一白鹿, 내겐 흰 사슴 한 마리 빌려 주고
 自挾兩青龍. 자기는 푸른 용 두 마리 거느리네.
 含笑凌倒景,⁷⁰⁾ 웃음 머금고 하늘 위로 오르기에
 欣然願相從. 즐거이 따르려네.

〈校記〉

제3구의 '俊秀'는 '峻秀'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옛날 내가 제 나라 수도를 유람했을 때, 華不注 산 봉우리에 올랐네.
 이 산은 어찌 그리 수려한지, 연잎처럼 푸른 비취빛 이네.
 세속 초탈한 옛 선인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적송자였다네.

66) 齊都 :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도성, 지금의 山東 治博市 臨淄區에 있음.
 67) 華不注 : 산 이름. 華山이라고도 함. 山東 濟南市 동북에 있다. '不'자는 '柑(꽃받침)'자와 같은 의미로, 《詩經·小雅·常棣》의 "상채의 꽃이여, 꽃받침이 빛나도다(常棣之華, 鄂不韡韡)"의 '不'과 같다. '鄂不'은 바로 '萼跗'로 꽃받침(花蒂)을 말함. '華不注'는 이 산이 마치 꽃받침이 물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데서 유래함.
 68) 蕭颯 : '蕭灑'와 같은 의미. 언행과 인품이 고상하고 세속을 초탈함, 구속되지 않음.
 69) 了知 : 분명하게 알다. ○ 赤松 : 옛날 선선 이름. 《列仙傳·卷上》에 "赤松子라는 사람은 神農 시기에 비를 다스리는 신이다. 얼음과 옥을 복용하고서 그것을 신농에게 가르쳤고 불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불사를 수 있었다. 가끔 곤륜산으로 갔는데 항상 서왕모의 석실 속에서 머무르며 쉬었고, 바람과 비를 따라 오르내리었다. 염제의 작은 딸이 그를 따라 또한 신선이 되어 함께 날아 올라갔다. 帝嚳 시기에 이르러 다시 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는데, 지금의 비를 다스리는 신은 이에 근원을 두고 있다(赤松子者, 神農時雨師也, 服水玉以教神農, 能入火自燒. 往往至崑崙山上, 常止西王母石室中, 隨風雨上下. 炎帝少女追之, 亦得仙俱去. 至高辛時復爲雨師, 今之雨師本是焉)"라고 하였다.
 70) 凌倒景 : '凌'은 하늘로 올라감, '倒景'은 '倒影'으로도 씀.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일월의 빛이 거꾸로 아래로부터 위로 비추고 그곳에서 아래로 일월을 보면 그 빛이 모두 거꾸로이다. 문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도영'이라 함.

나에게는 흰 사슴 한 마리 빌려주고, 자기는 푸른 용 두 마리를 거느리고,
웃음 머금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오르기에, 나도 즐거이 그를 따르고자 하네.

〈解説〉

이 시는 시인이 벼슬길의 험난함을 경험하고 여러 지역을 유람하다가 華不注 산 봉우리에 올라 이곳의 형상을 묘사하고 선인을 따라 노닐고자 하는 뜻을 기탁한 것이다. 때문에 조정을 떠난 뒤에 지은 것으로 그 시기는 대략 天寶 3년(744)이다. 시인은 '화불주'를 '연꽃'의 형상으로 비유하여 '화불주'에 탈속의 정취, 仙境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작품 가운데 '仙人'·'赤松'·'白鹿'·'靑龍' 등의 시어는 작품 전체에 遊仙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한다.

이 시는 판본 및 편집자에 따라 고품 제19수·제20수와 더불어 한 수로 합쳐 편집한 경우, 각각 독립시켜 세 수로 편집한 경우가 있다. 古詩의 用韻에서 대체로 한편이 '한 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一韻到底)'되는 점, 시법에서 '한 편에 하나의 뜻을 표현해야 함(一篇載一意)'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3수를 1편으로 편집할 경우 1편에서 환운이 빈번하고 뜻이 많아져 맥락과 조리가 연결되지 않고 수미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3수를 각각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8) 제19수 泣與親友別

泣與親友別, 눈물 흘리며 친구와 이별하러니
欲語再三咽.⁷¹⁾ 말하려 해도 거듭 목이 메네.
勗君靑松心,⁷²⁾ 그대 청솔의 마음 지닐 지어니
努力保霜雪.⁷³⁾ 서리와 눈 같이 고결한 지조 힘써 보존하길.

71) 咽 : 발음이 '噎(열)'과 같음.

72) 勗 : '勸(옥)'과 같은 의미로 스스로 애써 노력한다는 의미 또는 남을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는 의미임. ○ 靑松心 : 소나무 같은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곧고 강한 마음.

73) 努力保霜雪 : '霜雪'은 서리와 눈 같은 고결한 지조를 의미하기에 이러한 지조를 힘써 보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論語·子罕》 편에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

世路多險艱, 세상살이 얼마나 험난한가?
 白日欺紅顏.⁷⁴⁾ 세월은 곱던 얼굴 바꾸어 놓겠지.
 分首各千里, 헤어지면 서로 천리 밖에 떨어지리니
 去去何時還.⁷⁵⁾ 가고 또 가니 언제나 돌아올꼬?

〈校記〉

제7구의 '分首'는 '分手'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친구와 이별하려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 이별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길 떠나는 그대 추운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푸르른 소나무와 같이 어려움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서리, 눈처럼 고결한 지조 잘 보존하기를.

세상은 얼마나 험난한지, 세월이 흐르면 그 젊던 얼굴도 세파에 찌들겠지.

헤어지게 되면 각각 천리 밖에 떨어져 있게 될 터인데, 가고 또 가는 나는 세월이 흘러 언제나 돌아올 수 있으려나?

〈解說〉

李白的《古風》59수 중 이 시는 19번째 시이다. 古本에서는 각각 독립된 한 수로 보았으나 蕭士贊이 편집할 때 18, 19, 20 수를 한 수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에 응당 세 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앞의 네 행의 운은 '別, 咽, 雪'로, 뒤의 네 행의 운은 '艱, 顏, 還'으로 바뀌기에 19수의 경우도 두 수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朱熹는 "이백의 시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어지럽혀져 한 편을 3편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 '霜雪', 즉 서리와 눈은 시련을 의미하기에 "서리와 눈 같은 추위 속에서도 소나무처럼 굳은 뜻 변치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74) 白日 : 시간, 光陰. ○ 欺 : 못살게 하다. 압도하다. ○ 紅顏 : 젊은이의 혈색 좋은 얼굴.

75) 去去 : 점점 더 멀어지다.

편을 한 편으로 합치기도 한다(太白詩多爲人所亂, 有一篇分爲三篇者, 有二篇合爲一篇者)”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시를 갖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시는 이별시로 친구와 헤어지면서 친구가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 같은 마음과 서리와 눈처럼 지조를 보존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어 세상살이의 험난함과 더불어 인생이 짧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별의 아쉬움을 언급하고 있다.

3. 결론

본고는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총 8수를 역주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 당시 전쟁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간혹 ‘遊仙’을 동경하고 고결한 지조를 묘사하였지만 그것은 당시 현실을 비판하며 초탈의 강한 심리가 내재된 것이다. 묘사 수법에 있어서, 이백은 당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 감정을 ‘直敍’의 방식을 피하고 역사 사실이나 인물들을 묘사하여 비유적, 암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로써 일자일구에는 함의가 풍부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용운에 있어서 7편 모두 ‘한운을 끝까지 사용(一韻到底)’하였지만, 제19수의 경우 8구의 작품임에도 두 차례 換韻하여 九屑入聲 글자 ‘咽’·‘雪’, 十五刪 平聲 ‘顏’·‘還’을 사용하고 있다. 8수는 운미가 i, n·ng, 입성 3부류로 조성된 것이 많은데, ‘i’ 운으로 저음의, ‘n’이나 ‘ng’ 운으로 유장의, ‘입성’으로 축급의 선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예술수사 및 선율로써 작품 전체는 시인이 당시 현실을 비판하며 백성의 고통을 애달파하고 자신이 고결한 이상을 추구하는 선명한 형상을 그려내었다.

〈參考文獻〉

- 王琦 輯注,《李太白詩集注》,北京:中華書局,1977.
- 瞿蛻園·朱金城,《李白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 宋敏求·曾鞏 等編,《李太白文集》,成都:巴蜀書社,1985.
- 安旗 主編,《李白全集編年注釋》,成都:巴蜀書社,1990.
- 彭定求 等編,《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2.
- 郁賢皓,《李白大辭典》,桂林:廣西教育出版社,1995.
- 詹鎡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 陳伯海主編,《唐詩彙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 陳貽焮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 蕭士贊,《分類補注李太白詩》,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3.
- 丁放,袁行霽,《盛唐詩壇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2.
- 郁賢皓,〈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中國文學研究》,1989年 4期.
- 袁行霽,〈李白‘古風’其一再探討〉,《文學評論》,2004年,第1期.
- 薛天緯,〈聖代復元古,大雅振新聲—李白古風其一再解讀〉,《江淮論壇》,2012年,1月.

〈中文提要〉

本论文旨在探讨为李白《古风》中8首(第12首至第19首)而做的翻译、校记、详释与解说。第12首是歌颂汉代隐士严君平。此诗分三段,第一段歌颂了隐士严君平的高尚品德与平生事业,第二段描写了他受尘世冷落的姓名,却在天上广为传开,第三段感叹不识像严君平这样的有德隐士的现实。第13首是李白目睹不断的战争使老百姓不聊生,批判执政者的腐败与纸上谈兵。上半部描写边疆的荒凉及萧条的景色,中间描写战争的开始、从征的士兵的悲哀与边疆士兵的痛苦,下半部感叹由於没有像李牧那样的卓越的将军,老百姓遭到胡兵不断的抢掠,过着痛苦的日子。第14首是以古讽今、寄慨抒怀之作,感慨怀才不遇。诗人尊敬珍视人才的燕昭王,揭批不重用人才的当时执政者。第15首为游仙之作,叙述了作者仰慕神仙,后悔盛年未曾修炼,表现作者学仙的意愿。不过,其中可能含有叹世之意。第16首藉着李斯、石崇与范蠡事,表达功成身退的思想观点。此诗分三段,第一段通过描写天津桥周围的风光,说自然与人事都有代谢。第二段写当时公侯的奢侈生活。第三段藉着李斯、石崇事证明功成不退,家身不保,藉着范蠡事证明功成身退,可保家全身。第17首是用游仙体写的古诗,表现了诗人独善兼济的矛盾与忧国忧民的感情。前10句描写游仙之事,后4句忽然转入现实,前后形成鲜明对比。第18首与第19首、第20首可看作是一首梦仙诗,也可看作是独立的三首诗,从其情节与用韵来看,脉络互不连缀,首尾不照应,因此应分为三首来读。此诗为游仙之作,写诗人经历仕途坎坷,游历各处,登华不注的顶峰,遇仙人赤松子,共同升天。第19首为留别之作,全诗言与亲友告别时的感伤之情。起初,写与亲友临别,劝他保持青松心,霜雪志,接着,言世路艰险,人生短暂,最后表示惜别。

总之,在思想内容上,8首描写受战争苦的老百姓的痛苦及执政者的腐败与无能,由此可见对黑暗现实的诗人的批判精神。在表现手法上,8首避开直叙,将批判黑暗现实的诗人的感情,藉着比喻、暗示,表现出来。因此,在一字一句上,都有丰富的意蕴,并留下多种多样的解释的可能性。

关键词:李白,《古风》,翻译、校记、详释,表现手法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